



남원 주천면, 양파 재배농가 일손돕기 나서

남원시 주천면은 18일, 주천면과 기획예산과, 지역활력과 3개 부서 직원 30여 명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하여 양파 운반과 톨백에 담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고 전했다.

농가에서는 “한창 바쁜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으며, 직원들은 “힘든 일이지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환순 주천면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통해 지역 농업인과 상생하는 농촌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상동지구대, 가정폭력 흉기 난동 대비 FTX 훈련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 상동지구대(대장 이장춘)는 얼마 전 경기도 파주에서 가정폭력 신고 출동 과정 중 4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3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계기로 비슷한 긴급 대응 상황에 대비해 실제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흉기 난동에 대비한 FTX를 실시했다.

상동지구대는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대별 맞춤형 FTX를 확대 시행하고,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장춘 상동지구대장은 “가정폭력 출동은 예측이 어려워 경찰관들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자체 FTX를 실시해 현장 대응전 과정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신평동 복지기동대, 저장강박증 세대 대청소

김제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최임관)가 18일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집청소가 힘든 70대 장애인 저장강박증 대상자의 집을 찾아 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집안 정리를 하지 못하고, 쓰레기를 쌓아 두고 방치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상태로 거주해 왔는데 그동안 청소를 거부해 오다가 이번에 청소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복지기동대원들이 집 안팎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오물들을 치우고, 집안 내부 곳곳을 꼼꼼하게 닦고 소독을 실시해 쾌적한 생활 공간을 마련했다.

최임관 복지기동대장은 “저장강박증 대상자를 발굴하고, 꾸준한 소모임으로 관계 형성을 통해 청소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학·지역 업체가 상생하는 따뜻한 나눔

전북대 후원의집 대표들, 총 20명 학생에게 사랑의 장학금 수여

전북대 후원의집 대표들이 지난 17일 진수당에서 사랑의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전주 호성순대 설춘영 대표를 비롯한 후원의 집 대표들과, 양오봉 총장, 대학 주요 보직자, 단과대학 장, 장학금 수혜 학생 등이 참석해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장학생으로는 경상대학 경제학부 김성용 학생을 포함한 총 20명이 선발돼 지역 사회의 정성과 응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후원의집 제도는 지역 업체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전북대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대학 구성원들은 해당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하는 ‘윈-윈’ 모델이다.

2003년부터 운영된 이 제도로 지금까지 약 14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현재까지 이자 수익으로만 300여 명의 학생에게 2억 6천만 원 가량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오봉 총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기부는 학생들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며 “후원의집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가치이자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한 호성순대 설춘영 대표는 “작은 기부가 학생들의 미래에 큰 힘이 된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다”며 “오늘 이 자리가 기부자와 학생 모두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혜 학생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한 신민근 학생(기계시스템공학부)은 “오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도소 출소예정자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광주지방교정청 주관… 출소 앞둔 수형자 90여명, 구인업체 20곳과 현장 면접

광주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전주교도소에서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전주교도소(소장 윤순홍)는 광주지방교정청 주관으로 6월 18일 교도소 강당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전라남·북도 8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출소예정자 약 90여 명과 지역 내 구인업체 20곳,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4곳이 참여해 현장 상담과 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출소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구직자의 희망 직종과 적성에 맞춘 1:1 맞춤형 상담과 면접이 이뤄져 실질적 일자리 매칭에 중점을 뒀다.

실제로 교정시설 출소자는 사회의 방대와 편견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광주지방교정청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윤순홍 전주교도소장은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취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취업



기회를 넓히는 것은 재범 방지에도 크게 기여한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면접 동행, 직업훈련 등 다양한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교정청에서는 앞으로도 수형자들이 사회의 건강 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고창소방서, 자원순환시설 화재 예방 안전점검

고창소방서는 지난 17일 고창군 아산면에 위치한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를 방문해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하절기 폭염과 건조한 날씨로 인한 폐기물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점검에는 고창소방서 대응예방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최근 폐기물 화재 사례 전과 △소방시설 정상 유지관리 상태 확인 △생활폐기물 보관량 5톤 초과 시 즉시 반출 안내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시설 내 예방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서, 워터파크 개장 관련 범죄예방 진단

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 순화파출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16일 순창읍 발효테마파크 내 새롭게 개장한 워터파크에 대하여 안전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범죄예방계를 중심으로 여성청소년계, 지역경찰 합동으로 순창군 민속마을 일대에 인접한 워터파크와 글램핑장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범죄 취약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진단 대상은 △화장실 및 탈의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비상벨 및 CCTV 설치 현황 △조명 및 야간 가시성 △보안인체 가림 및 경보체계 △직원 및 보안·안전요원 배치 등이며, 실제 이용객 동선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다.

진단 결과 일부 사각지대 비상벨 추가설치와 안내방송을 권고하고 경찰·군청·소방 등 유관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권고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김제시 요촌동, 주민에 소방안전·심폐소생술 교육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고영선)와 더불어 지난 17일 김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40명의 요촌동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 사각지대 소방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한 주민들과 종합복지관 직원들이 화재 사고 예방과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에 대해 실습을 겸한 강의를 들으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해준 요촌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를 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